나이 : 89년생 만 29세

학부 : 광운대학교 법학부 , (경영학 부전공)

리트 : 104.5점 (언어 : 19개/ 54.4점/65.5, 추리 : 25개/50.1/47.4 점)

학점 : 3.72 / 4.5, (GPA 91.2), 법학전공 72학점(3.77 / 4.5), IT법무 심화전공

토익 : 935

경력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법률상담관 근무 (17.06 ~ 18.05)

- 전화, 서신, 대면, 공문, 국민신문고 상담 약 6000건

- G-STAR 2018 법률상담 지원

- BCM(부산컨텐츠마켓) 2018 법률상담 지원

- 2018 SW감정인 워크숍 참석

- 저작권 문화 2018년 4월호 <저작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원고 기고

- “기업실무자를 위한 민사소송실무” 교육 수료(로앤비)

- 국민신문고 칭찬 민원 1회

- 2017년 4분기 친절사원

- 신문기사(인터넷) 인터뷰 1회 (2017/11/09)

* 한국일보 / 작품 훼손에 저작권 침해까지, SNS 인증 열풍에 멍드는 전시회 관람 문화
* <http://www.hankookilbo.com/v/1fe356ad088843d3bd564edee98ef814>

- 학부생활, 자기소개 관련 스토리

[항상 성장하는 사람]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를 채우려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2.63점의 낮은 학점으로 시작하였지만, 매 학기 좋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4학년 1학기에는 4.5만점에 4.3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입사 시험과 면접으로 인하여 더 좋은 학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지만, 항상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저의 가치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성적 장학금을 받고 학과 수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더 발전하기 위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법학에 대한 애정이 생겼으며 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발견하였고,

법학전공과목을 24과목 72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이러한 가치관을 지키려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은 완성의 때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oo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며 법학에 대한 애정과 성장하고자 하는 신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이뤄 더 나은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왜 법학을 하고 싶은지, 왜 애정이 생겼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 학부생활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야하나…

- 지원동기

[5653]

법에 대한 애정과 이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취업하여 법률상담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5653”은 제가 법률상담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한 상담의 횟수입니다. 법률상담관으로 근무하면서 학문으로의 법은 저에게 실무로써 다가왔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물은 관행화된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그 가치를 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학생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거론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진 법률적 지식으로 조력을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직무상 법률상담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과 소송대리권이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조력을 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법적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가로서 완결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고, 이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고자 oo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말 다듬기, 어색함, 에피소드 추후 삽입 (ex:신문고 칭찬 및 행사 저작권 법률상담 지원)

- 학업계획, 진로 계획

?

- 기타